

“저승사자가 왔다”

광주 관가 초진장

지역 관가가 ‘암행감찰’로 불안에 떨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이 본격적으로 ‘암약’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에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P총경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를 당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찰·행정·교육계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감찰반은 공무원들 사이에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초 L사무관이 감찰반에 의해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지난 3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여주시 C시기관이 ‘그물’에 걸려들었다.

감찰반은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산하 5개 팀으로, 1개 조는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다. 약명(?)이 높은 것은 영

총리실 암행감찰반 본격 활동

사무실 급습, 서랍·캐비닛 수색

단골술집 잠복...주차장 밤샘도

화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쥐도 새도 모르게’ 활동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서 적발하기 때문이다. 감찰반 중 1~2명은 기관의 출입구에 배치돼 오가는 사람을 체크한다. ‘출입구 조’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내부 배치 조’는 외부인의 청사 내 일거수 일투족의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공직자 사무실에 들어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도 확인하고, 책상이나 사무실을 조사하기도 한다. 관공서 주변의 식당·찜집·빵집과 공무원들이 자주 가는 술집, 아파트 주차장 등에도 밤낮으로 잠복한다.

감찰은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내부 제보나 투서가 있을 경우 ▲신용불량 등 비위 가능성이 큰 공직자에 대한 ‘타깃 감사’까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암행감찰로 인한 공무원들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도 K총경이 감찰반과 한때 승강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색영장이나 아무런 증거 정황 없이 불측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서랍 등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암행감찰 방식에 적잖은 문제가 있지만, 검찰·경찰관이 포함된 상급기관의 감찰을 거부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오토바이 폭주족 심야 도심 행패

20여명 광주 곳곳 4시간 광란의 질주 경적 울린 택시 부수고 운전자 폭행도

심야시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폭주족 20여 명이 조심하라며 경적을 울린 택시를 집단으로 겹추고, 폭행했다.

1일 새벽 2시2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정문 앞 도로. 조용하던 거리에 난데없이 굉음이 들리며 폭주족 20여 명을 태운 오토바이 10여 대가 나타났다. 이들의 선두에서는 광주시 동구 모다방 종업원 이모(22)씨가 ‘광주33거 41××’호 엑센트 승용차를 몰며 ‘지그재그’ 운전과 함께 있었다.

이씨의 뒤에서 운전을 하던 영업택시 기사 정모(32)씨는 “한 차선으로 운전하라”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씨는 곡예운전을 멈추기는커녕 뒤따라 오던 동료에게 휴대전화를 걸며, 택시를 가로막으라고 지시했다. 때마침 신호대기에 걸려 멈춘 정씨는 순식간에 폭주족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정씨는 폭주족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다가오자 열린 차 문을 잡았다. 폭주족들은 “차 문을 열라”며 택시 전조등과 번호판, 트렁크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마구 부렸다. 두려움에 떨던 정씨는 112에 신고했고, 5분 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정씨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왜 남의 차를 함부로 부수냐”며 항의했다. 폭주족들은 그러나 정씨의 목소리를 잡고 혼드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이씨 등 3명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승객을 태우고 화순으로 가던 중 앞차가 운전을 너무 위험하게 해 경적을 한 번 울렸다”면서 “폭주족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차를 부수자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 폭주족들은 전날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N빌딩 앞에서 만난 뒤, 무등산장 도로·북구청 일대·동구 조선대 앞 등 시내 곳곳을 4

시간 넘게 난폭운전하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 3명을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나머지 폭주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폭주족 광주에 50여명

처벌 약해 단속 어려움

폭주족은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의 차나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집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소음기에 구멍을 뚫어 운전시 굉음을 내고, 오토바이의 경우 의자를 정상보다 20~30cm 높게 개조한다. 경주용처럼 색깔을 칠하고(tuning), 시속 1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도록 엔진을 바꾼다.

일본의 폭주족은 400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를 타지만, 광주에서는 ‘VF’(125cc)와 ‘EX-IV’(125cc) 등이 주류를 이룬다. 자동차 폭주족은 ‘티뷰론’ 등을 이용한다.

광주의 폭주족은 자동차·오토바이를 합쳐 50여 명으로, 북구청·광산구 첨단지구 인근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몰거나 ‘레이싱’(Racing) 마니아인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법상 폭주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은 ‘도로교통법’(제49조 등) 위반 혐의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량을 불법 개조한 폭주족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 등)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성묘 미리 합니다” ‘징검다리’ 추석 연휴가 시작된 1일 오후 광주 망월동 시립묘지. 이날 시립묘지에는 1천500여 명의 성묘객들이 찾아와 미리 성묘를 마쳤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운동장 사용’ 축구 동호회 몸싸움

동호회 늘어 연습장 다툼 치열...광주 북부경찰 4명 입건

월드컵 후 축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동호회들끼리 연습장소를 놓고 다툼이 빚어졌다. 광주 북부경찰은 1일 학교 운동장 사

용을 두고 몸싸움을 벌인 광주 W축구 동호회 회원 정모(41)씨 등 3명과 M동호회 회원 황모(42)씨를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J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장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말다툼 끝에 서로 치고받는 등 몸싸움을 벌

인 혐의다.

W동호회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기물을 파손할 경우 전액 변상을 하고, 유소년 축구 교실을 여는 조건 하에 1년 동안 운동장을 전용으로 쓰기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동호회 측은 “다른 운동장은 2~3개 팀이 함께 쓰는데 운동장을 혼자 독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침



택배-중국집 배달원 속도경쟁 ‘몸싸움’

○명절을 앞두고 서둘러 배달을 하려던 20대 택배 배달원과 40대 중국집 배달원이 차선 진로 변경을 놓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J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를 놓고 주먹 다짐을 벌인 G 커서비스 배달원 유모(23)씨와 H 중국집 배달원 신모(42)씨를 1일 폭력행위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추석 선물 배달이 밀려 서둘러 운전을 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선처를 호소.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